



#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제도

2014.07

## 가전제품 강국, 1인당 재활용률은 낮다

대한민국은 TV, 냉장고 등 세계 가전제품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가전제품 재활용률은 EU 평균의 약 43%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EU의 폐전기·전자제품 1인당 재활용량은 7.1kg(2010년)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1인당 3.1kg(2012년)에 불과합니다.

1인당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량



## 기존의 시스템, 불편한 점이 많았다

그 동안 가정에서 못 쓰는 폐가전제품을 버리는 일은 골칫거리였습니다.

우선 집 앞 수거장소까지 옮기려면 어른 몇 명의 수고가 필요하고, 제품에 따라 3,000원에서 1만 5,000원까지 하는 스티커를 구입해 붙여야 했습니다.

배출하더라도 돈 되는 부품만 빼내고 방치·폐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폐가전제품에는 중금속·폐냉매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잘못 방치되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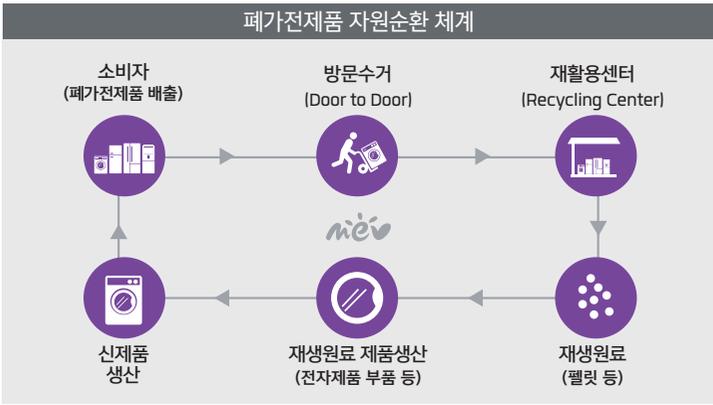


## 무상 방문수거 제도, 자원순환의 모범사례

우리나라의 폐가전제품 재활용시설은 이미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전국 9개의 권역별 재활용센터에서는 수거한 폐가전제품으로부터 재생 원료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의 문제점, 소비자가 폐가전제품을 배출할 때의 불편만 사라진다면 재활용률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무상 방문수거 제도는 배출자, 가전제품 생산자, 재활용 센터, 지자체 등이 함께 만드는 자원순환의 모범사례입니다.



## 모두에게 만족스럽다, 고객 만족도 99.6%

사업 추진 2년여 만에 전국적으로 제도를 확대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용자들의 높은 서비스 만족도였습니다.

2013년도 이용자 8,601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무려 99.6%(8,566명)의 이용자가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만족도  
99.6%



## 이용 방법

### 쉽고 간단하다, 원스톱 간편 예약

무상 방문수거의 핵심은 대형 폐가전제품 배출자의 불편해소, 즉 편리성입니다.

배출을 원하는 가정에서 직접 콜센터로 연락하시거나,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에 신청 하시면 됩니다.



1599-0903



www.edtd.co.kr



ID: weec

신청이 접수되면 지역별 수거 일정 등을 검토한 후 방문일자를 신청자에게 직접 연락해 알려드립니다.

전담수거차량과 전담수거반이 예약일자에 방문하여 집 밖으로 직접 운반(Door to Door) 해 드리며, 모든 비용은 무료입니다.

### 폐가전제품이면 된다, 다양한 수거 품목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1m 이상 대형 폐가전제품(원형이 훼손되지 않은 제품)이 대상입니다.

길이 1m 이하 중 소형 제품의 개별 수거는 인력과 차량운행에 소요 되는 비용 때문에 무상 수거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형제품을 수거할 때 수거 요청을 하시면 대형 폐가전제품과 함께 수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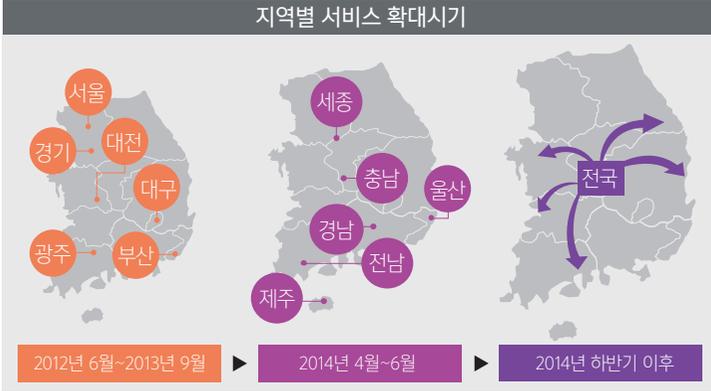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1m 이상의 폐가전제품  
\* 이 외 가스오븐레인지, 식기세척기, 냉온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병행가능 품목

대형제품 수거 시에 중 소형 제품 병행 배출 가능  
\* 오디오, 휴대폰, 컴퓨터, 프린터, 팩시밀리, 선풍기, 다리미 등

## 어디에서나 수거한다,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



무상 방문수거 제도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가전제품 생산자 재활용 단체인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수거비용 부담)가 서로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2012년 6월 서울시를 시작으로 2013년 9월까지 6개 시·도가 협약에 참여해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 서울('12.6), 대구('13.4), 대전('13.6), 경기 9개 시·군('13.6), 부산('13.7), 광주('13.9)

2014년 6월에는 6개의 시·도가 추가로 참여하여 전국적인 사업으로 영역을 넓혔습니다.

\* 충남·전남·경남·제주·세종('14.4), 울산('14.6)

2014년 하반기 이후에는 나머지 지역도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단계별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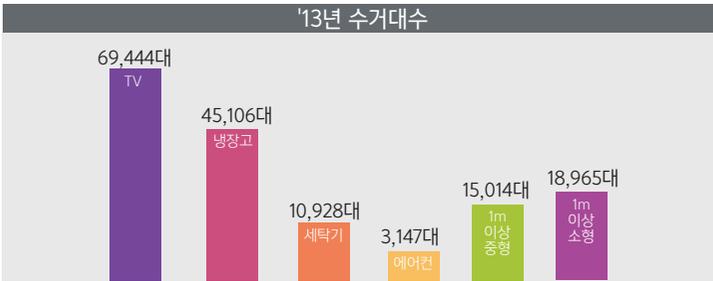
## 사업 효과

### 점점 늘어나는 제품 수거량

2013년 6개 사·도가 참여한 무상 방문수거 제도를 통해 총 16만 2,604대의 폐가전제품이 수거됐습니다.

무게로는 7,454톤에 이르는 양입니다. 수거량은 무상 방문수거 제도 이전인 2012년에 비해 지자체별로 약 1.5~6배 늘어났습니다.

품목별로는 TV가 6만 9,444대(전체의 42.7%)로 가장 많고, 냉장고 4만 5,106대(27.7%), 세탁기 1만 9,28대(6.7%) 순으로 수거됐습니다.



그 외의 길이 1m이상 중형 품목(PC, 모니터, 전기오븐 등)은 1만 5,014대, 1m이하의 소형 품목(전자레인지, 휴대폰 등)도 1만 8,965대가 함께 회수됐습니다.

### 점점 높아지는 자원 회수율

폐가전제품은 다양한 금속자원(구리, 철, 알루미늄, 금, 은 등)과 플라스틱류, 유리류 등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거한 폐가전제품은 재활용센터의 전처리, 선별, 파쇄 등 자동화 공정을 거쳐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원료로 재탄생 합니다.

2013년에 수거한 가전제품 1대당 평균 자원 회수율은 세탁기 96.2%, 에어컨 93.4%, TV 92.5%입니다.

대당 평균  
자원회수율



세탁기  
96.2%



에어컨  
93.4%



TV  
92.5%

## 폐가전제품 재활용량 증가

정부는 폐전기·전자제품 1인당 재활용량을 2014년 3.9kg에서 2018년에는 EU에 근접한 수준(6.0kg)까지 늘리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업이 확대되는 2014년 수거량은 27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13년 수거량보다 약 2배 높은 수치로 앞으로도 수거량이 점점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환경적·경제적 효과 창출

2013년의 수거량만으로 배출수수료 절약, 매립비용 절감, 유가금속 회수 등 약 147억 원의 경제적 효과와 온실가스(CO<sub>2</sub> 기준) 약 2만 5,000톤을 감축하는 환경효과를 얻었습니다.

2014년에는 약 3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되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mev 환경부

mev

발행 : 환경부 대변인실(044-201-6061)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책담당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044-201-7384)

이 발행물은 국민들에게 환경정책을 알리고 정책의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행한 홍보물입니다.

© 2014 Copyrights Ministry of Environment. All Rights Reserved.